

상악 전치부 단일 임플란트 식립시기의 결정 : 즉시식립, 조기식립, 지연식립

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치주과¹,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치주과²
윤시원^{1*}, 방은경^{1,2}

Introduction

상악의 심미적 영역에서의 단일 임플란트의 식립은 가장 복잡한 문제 중 하나이다. 기능적 회복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중요하지만, 임플란트 식립 시기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.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 시기는 4단계로 구분된다. 1) 발치 후 즉시 식립 2) 연조직 치유 후 4~8주 조기 식립 3) 부분 골 재생 후 12~16주 후 조기 식립 4) 6개월 이상 기다린 뒤의 지연 식립이다. 각 단계에는 장단점이 있으며, 단계별로 유리한 임상 조건과 불리한 임상 조건이 있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악 전치부에 단일 임플란트를 식립한 시기별 케이스를 통해 임상이가 임플란트 식립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알아야 할 중요한 요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.

Case

Case 1. 즉시 임플란트 식립 / 교통사고로 22번 치아의 치근 파절로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한 31세 남자 환자로, 온전한 치조골과 단일 치근 부위를 가진 심미적 영역에서 두꺼운 연조직 형태를 보였다. 또한 #22번 부위에서 치근 파절로 인한 감염의 흔적이 없어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했다.

Case 2. 조기 임플란트 식립 / #21 치관 파절로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한 57세 남자 환자로, #21 치관연장술은 예후가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,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하였다. 추후 결합조직 이식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발치 후 연조직이 치유될 때까지 약 8주를 기다렸다가 순측의 치은 볼륨을 유지하기 위해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결합조직 이식을 시행하였다.

Case 3. 지연 임플란트 식립 / #12번 치아의 동요도로 인해 발치가 필요한 49세 여성 환자로, 치주염으로 인한 순측 및 구개측 골소실이 심하여 발치 후 치조제 보존술을 시행하여 수평 및 수직 골소실을 예방하고 연조직의 부피 유지하였다. 4개월 후 부분 골 재생 후 안정적인 초기 고정성을 확보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.

Discussion & Conclusion

상악 전치부의 임플란트 치료는 기능적인 치아의 회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심미적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. 임플란트 치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상가는 여러 요인을 평가해야 한다. 1)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 시기 2) 치유 과정 중 임상적인 수치의 변화가 임플란트 부위에 미치는 영향 3) 선택한 임플란트의 직경 4) 임플란트 주위 관리 5) 골증대술의 필요성.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시기별 적응증을 고려하여 적절한 케이스를 선택하는 것이다.